

반도체시장 마이너스 성장

세계 72개 유력 반도체업체의 마케팅 실무자 모임인 세계반도체무역통계(WSTS)는 올해 세계 반도체시장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약 1,347억달러로 지난 96년에 이어 2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TS는 그러나 세계 반도체 시장은 올해 2·4분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세로 들어서 99년부터 연간 17~19% 수준으로 성장해 오는 2001년에는 시장규모가 2,223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WSTS는 최근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98 춘계전망회의'에서 1·4분기에서만 전분기 대비 9.2%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뿐 2·4분기에서 4.0%, 3·4분기는 5.9%, 4·4분기에서는 5.5%의 플러스 정장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전년(1,372억달러)보다 1.8% 감소한 1,346억7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큰 폭의 회복세를 예상했던 WSTS의 「97년 반도체 추계 전망」 당시 예상치 1,626억2,200만달러(전년대비 16.6% 증가)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PC시장의 성장 둔화와 메모리 반도체 시황의 악화, 아시아지역 경제위기가 등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메모리 제품별 시장전망

(단위:백만달러, %)

구분		97년	98년	99년	2000년
D램	수요	19,798	14,538	18,426	24,947
	성장률	-21.2	-26.6	26.7	35.4
S램	수요	3,842	4,264	4,691	5,200
	성장률	-19.0	11.0	10.0	10.8
마스크	수요	1,016	856	789	749
	성장률	-24.2	-15.7	-7.9	-5.1
EP롬	수요	740	608	547	508
	성장률	-32.9	-17.8	-10.1	-7.2
플래시	수요	2,701	2,823	3,253	3,870
	성장률	3.5	4.5	15.2	19.0

된다.

지역별로는 미주지역이 4.1% 감소한 440억달러, 일본은 9.2% 줄어든 29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유럽지역과 아·태지역은 각각 5.0%와 2.8% 증가한 305억달러와 310억달러를 기록,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태지역의 반도체시장 규모가 일본과 유럽지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반도체업체의 주력 제품인 D램은 96년 -38.5%, 97년 -21.2%에 이어 올해도 -26.6%로 마이너스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으나 99년 26.7%, 2000년 35.4%, 2001년 35% 등 내년 이후에는 매년 30% 안팎의 고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표 참조>

미국의 인텔사가 주도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MPU)시장은 97년 26.6%에서 올해는 성장률 제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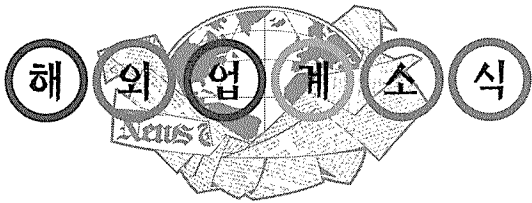
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불황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19.0%가 줄었던 S램시장은 올해 11%가 신장한 데 이어 99~2001년엔 연평균 10%의 안정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96년 40.3%, 97년 3.5%의 성장세를 보였던 플래시 메모리 분야도 올해 4.5% 성장에 이어 99년에는 15.2%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끌고 있다.

올 세계 네트워크 장비시장 성장률 8.1%로 소폭에 그칠 듯

올해 전세계 네트워크장비 시장규모는 291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의 소폭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미 「C넷」이 시장조사업체인 「인-스테이트」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더넷 스위치, 프레임 릴레이, 원격지 접속



장비 등 기존 네트워크장비 시장은 소폭 성장률에 그치는 반면 신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라우터 및 통합 네트워크장비 시장은 올해 다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매년 30~40% 이상 증가하던 네트워크장비 시장성장률이 올해 이처럼 둔화되는 원인은 이더넷 스위치 시장증가를 둔화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네트워크장비 시장점유율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넷 스위치 시장은 업체들의 과도한 제품출하로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네트워크 카드, 세어드 허브, 프레임 릴레이, 원격지 접속장비 등도 성장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우터 시장은 올해 전년대비 11%의 성장세를 기록, 시장규모가 5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라우터 장비업체들이 초고속 스위칭기술을 통합한 차세대 네트워크장비를 계속 출시하고 있어 전체 네트워크장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답텍, 맥용 Ultra2 스카시 신기술 발표

아답텍사가 매킨토시용 Ultra2 SCSI 신기술을 발표했다. 아답텍이 새로 소개한 Ultra2 SCSI 가속카드는 그래픽, 비디오, 멀티미디어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빠른

속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히 대용량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디지털 미디어 응용 프로그램의 렌더링(Rendering) 속도도 향상된다.

「파워도메인(Power Domain) Ultra2킷트는 기업과 소호(SOHO) 고객용으로 강력하고 환상적인 기기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판매대리점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맥용 파워도메인 2940U2W SCSI 가속카드는 Ultra Wide SCSI의 속도를 초당 40MB에서 80MB로 배가시킴으로써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것들 중 가장 빠른 SCSI 접속능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성능 향상은 Ultra2 성능을 배가시키는데 필요한 RISK 프로세서와 FIFO 버퍼를 갖춘 아답텍 AIC-7890 Ultra2 SCSI 컨트롤러 칩 덕분에 가능했다. AIC-7890은 아답텍사의 SCSI 컨트롤러 제품들 중 SCSI 오버헤드가 가장 낮아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능력을 현저히 개선해준다.

파워도메인 2940U2W SCSI 가속카드의 강점은 빠른 속도만이 아니다. 케이블 최대 연결거리가 현재의 Ultra Wide 케이블 연결거리의 4배에 달해 매킨토시 사용자들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주변기기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12미터의 융통성을 갖게 된다. 연결거리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파워도메인 2940U2W가 사

용하는 새로운 LVD시그널링 방식 때문인데 이 방식은 보다 빠른 성능과 더불어 노이즈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 원거리에서 데이터의 질을 그대로 유지해준다.

이 차세대 신기술은 속도와 케이블 연결거리에서의 장점 외에도 구형 SCSI 시스템 및 주변기기와 완벽한 하위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어 업그레이드 후에도 사용자들은 현재 사용중인 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일 버스에서 SCSI의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외에도 스피드플렉스(SpeedFlex) 신기술을 활용해 Ultra2 보드가 최대 속도 80MB/s로 Ultra SCSI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같은 버스상에서 구형 SCSI 드라이브도 구동시켜 준다.

처리속도 기존제품의 10배 고성능 DSP 발표

미국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고성능 디지털신호처리칩(DSP)을 발표했다.

이 회사의 32비트 DSP인 「SHARC」의 2세대 제품으로 평가되는 이 칩은 기존 제품에 비해 처리속도가 10배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측은 이 칩이 32비트 범용 DSP 중 가장 빠른 제품에 속한다며 컴퓨터는 물론 영상진단시스템과 수중음파 탐지기, 레이더, 3차원 그래픽

시스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 칩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제품발표로 휴렛패커드(HP)등 3개 업체를 신규 고객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해 DSP 시장에서 12%의 점유율을 기록,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와 루슨트 테크놀로지스의 뒤를 쫓고 있는데 특히 고성능 DSP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소형 대용량 MLCC 양산

일본 다이요유전은 가전 및 전자 기기의 소형화와 저소비전력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대용량 니켈전극 적층세라믹콘덴서(MLCC)5종류를 개발하고 본격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다이요는 가전.전자 기기의 DC/DC컨버터나 액정용 인버터에 탑재되는 이 MLCC를 오는 8월부터 5종류를 합해 월 2,350만개 규모로 양산하기 시작하고 1년 후에는 월 생산량을 4,500만개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5종류중 「550BJ476」은 5.6×5×2.5mm 크기의 제품으로 동급 제품으로는 업계에서 가장 큰 40μF의 정전용량을 갖고 있다. 다이요는 이 제품을 오는 8월부터 월 150만개 규모로 생산할 계

획이다.

또 「325BJ225」는 3.2×2.5×1.9mm의 소형제품이면서 대용량과 높은 정격전압을 양립시켰다.

플래시메모리 제조기술 개발

일본 NEC가 낮은 전압으로 정보를 기록.소거할 수 있는 저전압형 플래시메모리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NEC가 개발한 플래시메모리 제조기술은 정보를 기록하는 메모리 셀의 구조를 변경해 기록시 전압을 20V에서 16V로 낮추는 획기적인 것으로, 4V의 저전압화를 통해 정보기록시 소비전력을 약3분의 1정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조공정도 약 10% 절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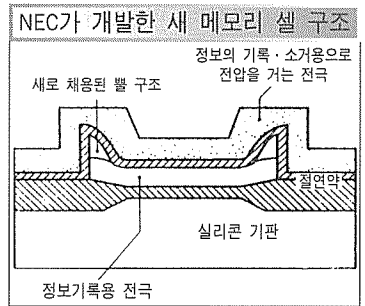
NEC는 새 기술을 차세대 1G급 플래시메모리부터 채용할 방침이다.

이번 새 기술을 메모리 셀 내부의 정보기록용 전극 양 끝에 실리콘 분자를 입힌 뿔 모양의 턱을 설치하고 뿔 표면에 실리콘 분자를 입혀 요철 모양을 만들어냄으로써 정보기록용 전극의 표면적을 지금 구조보다 2배 늘렸다.

이에 따라 정보기록용 전극과 정보 기록.소거용 전극 사이의 절연막 전기용량도 2배로 늘어나 기록소거용 전극에 걸리는 전압을 지금까지의 20V에서 16V로

낮춰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속도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다.

기존의 플래시메모리는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약 2V인 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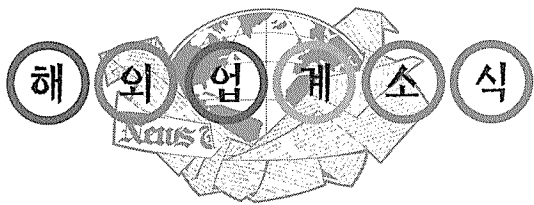


전압을 승압회로를 통해 20V로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새 구조를 채용할 경우 기록용 전압을 16V로 낮춤으로써 승압회로의 소비전력을 약 50% 절감해 칩 전체의 소비전력을 약 3분의 1 줄일 수 있다.

0.4V이하 저전압 작동 실리콘 양자소자 개발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이 0.4V 이하 저전압에서 작동하는 실리콘 양자(量子)소자를 개발했다.

마쓰시타가 개발한 소자는 전극 사이에 약 3nm의 얇은 실리콘 산화막을 끼우고 소자에 거는 전압을 크게 할 때 전류가 작아지는 「부성(負性)저항」특성을 활용해 복잡한 기능이 단순 회로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0.33μ미세가공기술 채택 32M 플래시메모리 개발

일본 후지쯔가 미국 어드밴스트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와 공동으로 32M 플래시메모리를 개발했다.

양사가 공동개발한 제품은 0.33μ크론의 미세가공기술을 채택해 저소비전력이면서 동시에 고성능을 실현하고 있다. 또 16M 등 기존 제품과 기능핀의 배치가 같아 대체사용도 가능하다.

광디스크 신기술 개발

일본의「공업기술원 산업기술융합영역 연구소」가 광디스크의 기록밀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새 기술은 직경 12cm 광디스크 판을 약간 개량하는 방법으로 기록밀도를 현행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의 10배 이상으로 높여 일반 영화의 경우 30시간 분량을, 고선명 하이비전 영상의 경우도 6시간 분량을 기록할 수 있다.

또 해독에 사용하는 장치(드라이브)가 기본적으로 현행 기기와 같고, DVD램 등에도 응용할 수 있어 영상·음악 등 멀티미디어정보의 기록매체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기술이 될 것으로 주목

된다.

새 기술은 디스크에 정보를 기록하는 원리가 DVD와 마찬가지로 다. 다만 기록막 위에 안티몬(Sb)이라는 원소로 박막을 만들고 읽기·쓰기용 레이저광을 이주 가늘게 한 점이 다르다.

안티몬은 일반적으로는 빛을 통과시키지 않지만 렌즈로 모은 강한 레이저를 비출 경우는 성질이 바뀌어 초점 중심부에서만은 빛을 통과시키는데, 이 부분의 크기가 직경 160Nm에 불과해 바로 아래 기록층을 가늘게 읽을 수 있게 한다.

DVD용 레이저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디스크에 정보를 써넣거나 읽어낼 때의 스폿 크기가 CD의 약 10분의 1, DVD의 4분의 1로 나타났다. 기록밀도로 환산하면 각각 약 100배, 15배 높은 것이다.

日전자업계 환경친화 사업 박차

일본 전자업계가 환경친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전자업체들은 최근 에너지절약, 리사이클화 등과 관련한 규제가 마련되고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친화 전략을 제품 경쟁력으로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후지쯔는 자원절약, 에너지절약, 리사이클의 편의성, 유해물질

규제, 환경정보표시 등 환경에 대한 배려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자원재활용화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후지쯔는 PC, 휴대전화 등 주요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정한 환경기준을 모두 갖춘 제품에는「그린제품」이라는 마크를 붙여 판매할 계획이다.

최근 환경보존과 관련한 7개의 목표치를 설정한 NEC도 정보통신 관련기기의 경우 오는 2002년까지 대기시 전력소모를 97년도 수준보다 30% 가량 낮추기로 하는 등 에너지절약 및 유해물질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9g파리 최경량 휴대폰 시판

휴대전화사업자인 일본이동통신(IDO)은 무게 69g의 세계 최경량 디지털 휴대전화를 판매 개시한다.

지금까지 휴대전화기 경량화는 NTT이동통신망(NTT도코모)이 주도해 왔는데 이번 IDO의 신제품 투입으로 NTT도코모와 신규 휴대 전화사업자간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IDO가 투입하는 새 휴대전화기「디지털미니모526G」는 교세라와 공동개발한 것으로 현재 최경량 휴대전화기인 NTT도코모의「디지털무버P206하이퍼」보다 10g 가볍다.

IDO측은「절전형 부품류의 개발로 전지의 소형화에 성공해 초경량화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성능 기존 레이저의 1000배 마이크로레이저 개발

레이저 발명 후 40년 만에 기존 레이저보다 성능이 1천배나 뛰어난 마이크로레이저가 개발됐다.

미국 루슨트 테크놀로지스 산하 벨연구소는 예일대, 독일의 막스 플랑크 물리학 연구소와 공동으로 카오스이론을 응용해 현재의 디스크형 마이크로레이저보다 1천배나 성능이 우수한 레이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초적인 양자-카오스 물리학과 최첨단 반도체 레이저기술을 통합해 개발된 이 마이크로레이저는 크기와 동력의 소모가 적어 이 레이저를 이용할 경우 직접 광네트워킹 분야와 온 칩(On Chip) 광데이터 프로세싱 분야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빨래감 움직이지 않는 세탁기 세계 첫 개발

일본 마쓰시타전기산업은 세계 최초로 세탁조 속에 있는 옷을 움직이지 않고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를 개발했다.

마쓰시타가 개발한 세탁기는

세탁조를 회전시켜 발생하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물살로 때를 없애는 세탁방식으로 세탁조 안에 있는 옷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옷의 손상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세척능력도 기존 방식에 비해 손색이 없다.

마쓰시타가 개발한 원심력 세탁 방식은 세탁조 전체를 일정방향으로 회전시켰을 때 원심력의 작용으로 수면이 절구통 형태로 만들어져 상승한 물이 측면을 통해 다시 중앙부로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때 세탁조 속의 옷은 움직이지 않고 그 속을 보통 샤워기의 10배에 달하는 속도의 물이 통과하면서 때를 없애게 된다.

마쓰시타는 오는 8월부터 이 세탁방식을 채용한 신제품 2개 기종을 시장에 선보이고 매달 3만 5천대씩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쓰시타는 이 세탁기를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채택해 미국, 유럽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이다.

NTT신형 면발광 레이저 개발

일본전신전화(NTT)기초연구소가 신형 면(面)발광레이저를 개발했다.

신형 면발광레이저는 적외선 발광의 갈륨비소로 돼 있는 재래식 면발광레이저에 파장판(板)이

라는 특수판을 결합, 재래식 레이저가 직선편광이라는 통상의 편광(偏光)을 발진하는 것과는 달리 특수한 원(圓)편광을 레이저광으로 방출하는 게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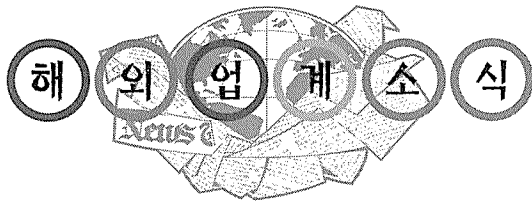
특히 신형 레이저의 원편광은 우회(右回)·좌회(左回) 두 종류인데 실온에서 자유자재로 원편광을 발진시킨 것은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이 원편광은 빛의 파장의 정보를 실어보내는 광통신에 응용할 경우 통신용량을 현행 실용방식의 두배로 늘릴 수 있어 초고속 광통신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주목된다.

환경친화 콘덴서 개발

일본케미콘은 다이옥신의 원인물질인 염화비닐과 수질,토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아연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전해콘덴서를 개발, 양산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케미콘이 개발한 전해콘덴서인「에코캡시리즈」에는 그동안 외장재료로 사용해온 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가 사용되고 있으며 리드선에 함유돼 있는 아연도 다른 금속으로 대체됐다. 일본케미콘은「에코캡시리즈」를 전해콘덴서 중에서 수요가 많은 범용 리드타입 제품이나 표면실장부품(SMD)으로 생산해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다.



일본케미콘은「에코캡시리즈」를 일본의 전체 전해콘덴서 생산량 중 40%에 달하는 월 1억 6천만개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다.

TDK GMR헤드 양산

일본 TDK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용으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자기저항(GMR)헤드를 본격적으로 양산한다.

이에 따르면 TDK는 자기저항(MR)헤드에 이어 GMR헤드 분야에서도 업계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월생산량을 2백만개로 늘리고, 내년 3월에는 6백만~7백만개로, 2000년 3월까지는 1천 8백만~2천만개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TDK는 이번 양산을 통해 MR헤드 생산량에서 GMR헤드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10~20% 수준에서 내년 3월에는 30~40%로, 2000년 3월에는 70~8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TDK는 GMR헤드에 7층으로 구성된 싱글 스핀들 밸브 구조를 채택, 1제곱인치당 4~5G비트의 면기록밀도를 실현했다.

세계 커넥터시장규모 축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의

경제적 위축과 유럽·남미지역의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 때문에 전세계 커넥터시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IMF한국과 심각한 경기불황을 반영하듯 다른 나라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인 커넥터시장 전문조사기관인 플렉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전세계 커넥터시장은 전년 동기보다 3.7% 감소한 65억 6천 7백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IMF자금지원에 따른 아시아지역의 전반적인 경기위축이 장기화하고 있고 올해 들어 달러화 강세로 유럽이나 남미지역 국가들의 환차손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역별 성장폭을 살펴보면 북미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한 34억 4천 8백만 달러인 반면 유럽지역은 5.1% 감소한 17억 9천 7백만 달러, 일본은 12.8%가 줄어 11억 9천 8백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은 20.7%가 감소한 7억 6천 1백만 달러를 보였다(중복계산 8억 7천 1백만 달러 포함).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가 80% 감소한 4천 4백만 달러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한국은 62.3% 감소한 6천 6백만 달러를 기록,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증가세를 보인 나라는 아

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중국이 20.4% 성장한 2억 3천 6백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5.8% 성장한 33억 9천 7백만 달러, 영국은 3억 4천 8백만 달러로 3.3% 성장했다.

플렉리서치는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 전체 성장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최고속 슈퍼컴 개발

일본 NEC가 상용제품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SX-5」를 개발했다.

「SX-5」는 NEC의 현 주력 슈퍼컴퓨터인「SX-4」의 4배에 해당하는 최대 4테라 FLOPS(1테라 FLOPS는 1초에 1조번의 계산 성능)의 계산이 가능하며, 메모리 용량도 8배인 최대 496GB로 초대용량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다.

NEC는 이 제품을 오는 12월 말부터 본격 출하할 계획이며 시판후 3년간「SX-4」를 합쳐 120여 시스템을 판매할 방침이다.

고속 CMOS 기술 발표

미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통상 실리콘 반도체의 처리속도 한계로 알려진 2GHz의 벽을 깬 새로운 고속 상보성금속산화막

(CMOS)기술을 발표, 그동안 고속 데이터 처리영역을 담당해온 화합물 반도체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TI는 최근 0.25미크론 CMOS 공정을 적용해 최고 초당 2.5G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고속 CMOS 기술을 발표했다. TI 측은 이 기술에 적정한 다이옥소 작업과 데이터 복원기술이 추가 될 경우 비화갈륨(GaAs)반도체와 고속 바이폴라 제품을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TI는 이 기술을 적용, 어드밴스트 IEEE 1394.b 인터페이스나 기가비트 이더넷 백본용 IC 등 고속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TI는 올해 말 8백 Mb/s의 IEEE 1394.b제품을 출시하고 1.6Gb/s 제품도 연이어 선보일 계획이며 최고 2.5Gb/s의 속도를 처리하는 기가비트 이더넷용 칩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미, 노트북시장 저가 신제품 '붐'

미국 노트북PC 시장의 신제품 가격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컴팩컴퓨터, 도시바, 에이서 등이 가격을 크게 낮춘 신형 펜티엄II 및 MMX펜티엄 노트북을 대거 발표하는 한편 게이트웨이, NEC 등도 이들 기종의 가격인하를 단행, 판매확대에 적극 나

서고 있어 저가화의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컴팩은 이번주 초 사이릭스의 미디어GX 및 고성능 펜티엄II를 탑재한 노트북 신제품 5개 기종을 1,600달러에서 3,000달러 미만의 저렴한 가격대에 선보인다.

이중 233MHz 미디어GX를 탑재한「프리자리오 1230」모델이 1,699달러이며 AMD의 233MHz K6제품이 2,199~2,499달러, 266MHz 펜티엄II 기반의「프리자리오 1655」가 2,999달러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에이서도 이에 앞서 중소기업 시장을 겨냥, 233MHz 펜티엄II 기반의 업무용 노트북「익스텐사 710」시리즈 3개 모델을 발표했다.

하위모델인 710DX의 경우 2.1GB HDD와 12.1인치 LCD를 갖추고 가격이 1,999달러이고 3.2GB HDD와 12.1인치 TFT LCD를 내장한 710T 모델이 2,399달러, 그리고 3.2GB HDD에 13.3인치 TFT LCD탑재 모델인 710TE가 2,699달러에 공급되고 있다.

도시바 역시 이번주 초 266MHz MMX펜티엄을 탑재한「새틀라이트 335」 및 「330」시리즈를 발표한다. 4.1GB HDD와 12.1인치 LCD를 탑재한 이들 제품의 가격은 2,199달러부터 시작된다.

한편 게이트웨이는 펜티엄II 모델인 솔로 5100의 가격을 100달러씩 인하, 공격적인 가격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번 가격인하에 따라 266MHz 프로세서와 14.1인치 TFT LCD, 80MB D램, 4GB HDD, 20배속 CD롬 드라이브를 갖춘「5100XL」이 3,599달러로, 32MB D램과 2GB HDD 사양의「5100LS」가 2,999달러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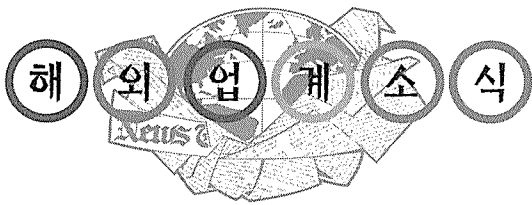
NEC도 233MHz 및 266MHz의 MMX 펜티엄을 탑재한「버사 5000」과「버사6000」시리즈의 가격을 400~600달러 인하, 본격적인 판매확대에 나서는 등 업체들의 노트북 가격경쟁은 데스크톱PC의 가격경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지난 몇 년동안 20%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해 온 미국 노트북 PC시장은 올 들어 저가화와 함께 성장을 둔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시장조사기관인 PC데이터에 의하면 1.4분기 판매증가율이 작년동기비 15% 안팎에 그쳐 2001년까지 20% 정도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란 업계의 전망을 어렵게 했다.

256M 플래시메모리 연내 양산

일본 도시바가 256M 플래시메모리를 올해 안에 양산한다.

도시바는 대용량 플래시메모리가 오는 2000년부터 오디오 제품에 본격 채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안에 256M급 제품을 월 20만개 규모로 양산하는 한편 2000년까지 그 규모를 50만~1백



만개로 늘릴 방침이다.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는 지금 까지 디지털카메라의 데이터 저장용으로 주로 사용돼 왔으나 일본 오디오업체들이 이르면 2000년부터 이 제품을 미니디스크(MD)를 대체하는 차세대 오디오용으로 채용할 방침이어서 향후 수요확대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한편 히타치제작소도 최근 256MD램을 내년 초부터 본격 양산할 방침이라고 발표해 향후 대용량 플래시 메모리를 둘러싼 업체간 생산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세계 프린터시장 매년 10%이상 성장, 2001년엔 8천만대 돌파

향후 4년간 세계 프린터시장은 대수 기준으로 매년 10%이상 성장해 2001년 그 규모가 8천만대를 돌파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연평균성장률이 한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은 일본전자공업진흥협회가 주요 20개사의 출하 통계를 바탕으로 대수와 실제 판매가격으로 나눠 예측한「2001년까지의 프린터 세계시장 동향」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프린터 시장은 PC성장과 비례해 대수로는 매년 12%의 성장률을 나타내 2001년 그 규모가 8,010만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금액

으로는 제품 단가의 하락이 계속돼 성장률이 7%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인자방식별로는 잉크젯방식이 고화질화와 인쇄속도의 고속화 등 기술개선에 힘입어 연평균 14%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7년의 66%에서 2001년에는 71%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반해 도트프린터는 잉크젯 방식에 눌려 매년 13%의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단가가 높은 컬러레이저는 매년 성장을 지속해 금액으로는 2001년 전체의 3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97년도 세계 프린터시장 규모는 대수로는 전년비 21% 늘어난 5,164만대, 금액으로 9%증가한 2조7,729억엔으로 추정된다.

중국 전자업계, 구조조정 직면

중국 전자업체가 과잉설비를 축소하고 첨단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베이징에 본부를 둔「컴퓨터 및 미세전자산업 개발 연구소(CCID)」소식통들은 가전부문의 경우 심각한 설비과잉에 처한 반면 첨단 전자부문에 대한 투자는 크게 부족한 상태라며 중국의 전자산업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컬러 TV 생산설비는 연간 4천5백만대의 생산능력을 가졌지만 이 가운데 46.1%만이 가동되고 있으며 냉장고의 경우도 전체 생산설비의 50.1%만이 실제 가동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전자산업을 시장경쟁 원칙에 맡겨 놓았으나 과잉 중복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전부문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DVD 드라이브 채용 확산

그동안 일부 하이엔드급 PC에만 탑재돼오던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드라이브가 1천2백~2천달러대의 중급 가정용 제품에도 폭넓게 채용돼 CD롬 드라이브의 자리를 잇고 있다.

PC가격의 하락세로 1,500달러 안팎의 제품에서도 고성능 프로세서와 대용량 하드드라이브를 지원함에 따라 게이트웨이, 컴팩 컴퓨터, IBM 등 주요 PC업체들이 DVD 드라이브를 탑재해 멀티미디어 기능을 강화시킨 홈PC를 잇따라 발표, 가정용 수요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편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IDC는 앞으로 멀티미디어PC의 DVD드라이브 채용은 더욱 급속히 확산될 것이며 가격도 1,50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